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1): 53~62, 2014. 3. http://dx.doi.org/10.14700/KITLA.2014.32.1.053

조선시대 지리산 유람록(遊覽錄)에 나타난 경관자원 연구

이창훈* · 이재근**

*(주)디엔씨엔지니어링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Scenic Resources in Mt. Jiri Documented in the Joseon Era Travelling Records

Lee, Chang-Hun* · Lee, Jae-Ke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C engineering Inc.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Human has noticed a beautiful natural scenery and appreciated it as a scenic site by giving meaning to it and evaluating it. How the beautiful natural scenery was appreciated as a scenic site depends on natural feature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nd the current of the times.

Mt. Jiri is the highest mountain in inland South Korea and keeps ancestors' history and culture intact. Joseon Dynasty literary men frequently mentioned Mt. Jiri as a tourist attraction where they could pursue and share their studies against its beautiful natural scenery. The countless literary men visited Mt. Jiri and some of them left their journeys as travelling records.

This research aimed at apprehending travel routes of Chunwang Peak of Mt. Jiri based on the contents of travelling records and investigating the scenic site value of scenic resources as the literary men in Joseon Dynasty recognized.

The scenic resources of Mt. Jiri were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reason or motivation of person who climbed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was a change of reason or motivation in climbing Mt. Jiri from a following of master's paths to discovery of a new trails. Thus, even if there was a difference in reason or purpose of natural scenic beauty, the concept of scenic site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day should be included into the extended meaning of scenic sites. This research aimed the routes of well-known literary men need to be developed as programs utilizing "the concept of ancient sages' footprints" and the development of these contents shall be used for vitalization and self-support of a regional economy.

Keywords: Chenwangbong in Jirisan, Contents of culture and tourism, Place identity, Scenic sites, Travel-Path

국문초록

인간은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자연경승지에 주목하고, 그 자연대상지에 의미를 부여하며 가치를 매기는 행위를 통해 명승(名勝)으로 인식해왔다. 자연이 어떻게 명승으로 인식되어 가는가 하는 것은 자연풍토, 사회, 문화, 시대흐름 등에 의해 달라지기 마련이다. 지리산(智異山)은 남한 내륙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은 산인만큼 옛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수려한 풍광을 배경으로 학문을 수양하거나 학식을 나눌 수 있는 유람처(遊覽處)의 성격으로 지리산을 자주 거론하였다. 조선시대에 지리산을 찾은 문인·학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으며, 이 중에 일부는 자신의 여정을 유람록(遊覽錄)으로 남겼다.

이에 본 연구는 지리산 유람을 즐기며 기록되었던 유람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리산 천왕봉 유람경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당시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각에 보여졌던 경관자원의 가치를 알아보자 하였다.

† **Corresponding author** : Lee, Chang-H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C engineering Inc., Yongin, Gyeonggi-do, 448-831, South Korea. Phone : +82-31-272-0513, Fax : +82-31-272-0583, E-mail : nonbabone@nate.com

지리산의 경관자원은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기나 욕구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변화는 더이상 선인들이 다녔던 길의 답습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탐방로의 개척과 편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승의 개념은, 이용하려는 동기와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더라도 넓은 의미의 명승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유람경로와 경관자원 중 인물사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문인의 경로는 '선현(先賢)들의 발자취 개념'을 응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 및 경제적 자립도 향상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명승, 문화관광콘텐츠, 유람경로, 장소정체성, 지리산 천왕봉

Ⅰ. 서론

예로부터 산은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 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주고, 예로부터 산수유람을 통해 자연의 덕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심신수양(心身修養) 장소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리산(智異山)은 남한 내륙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은 산인 만큼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지리산 유람과 관련된 역사적 사료(史料)는 꾸준히 발굴되고 있으며, 글이나 그림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및 자연에 대한 관심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각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우선 일제 강점기 이후 지리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형·지질과 동·식물 위주의 자연환경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자연환경분야 외에 구전 및 설화 등의 무형형태의 자원뿐만 아니라 시문, 기문, 지리산 내 존재하는 유형형태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임양재, 1963; 홍성욱, 1999; 이도한 등, 2008; 김선희, 2009; 곽재용, 2011; 정경운, 2011).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지리산 역사문화 관련 연구는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와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단의 주도 하에 '조선시대 지리산 유람록' 번역 작업이 진행되어, 이와 관련한 학제간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람의 시야에 의하여 한정되는 경관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위치를 획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관을 파악하게 된다. 일련의 과정에서 유람을 하면서 경관이 전개되고, 유람하는 문인들에게 장소로 지각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경관이 펼쳐지는 대상지는 일정 행위 또는 사건이 일어나며 제한된 경계를 지닌 공간인 것이다. 또한 장소는 장소성(sense of place)이라는 말에서와 같이 특정한 경험이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임승빈, 2003).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지리산을 오르면서,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한 유람록 내용에 중점을 두어 경관자원을 분석하고, 경관자원으로 인식되었던 장소의 정체성을 제고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나아가서 도출된 연구의 결과와 자료가 인문분야 및 타 분야의 DB로 활용되고, 저성장 사회에서의 여타 지리산 경관자원들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392~1910년 사이의 총 31명의 기록을 연구하였다(표 1 참조). 지리산 유람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를 지리산권 외부까지 확대할 경우 연구대상지가 광범위해져 자료수집 및 분석에 있어 객관성 결여 및 연구 대상의 범위 제한이 어렵다. 이에 지리산 유람의 형태를 지리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지리산 외부에서 지리산을 조망하는 경우 2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그 중 지리산 내부에서 유람한 과정과 내용만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정구역인 약 483㎢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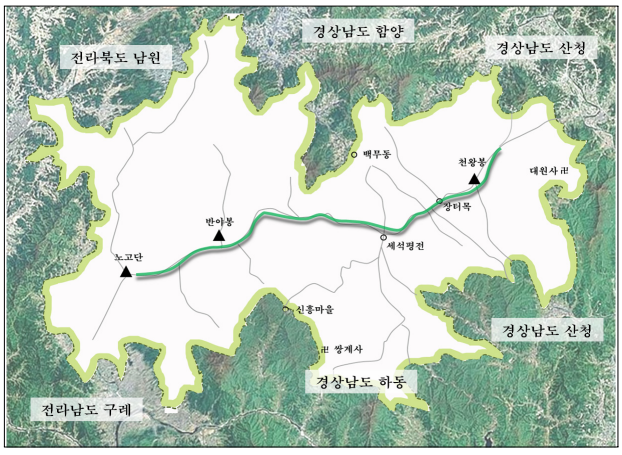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대상지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이뤄졌으며, 여기에서 문헌조사는 한국고전번역연구원이 진행 중인 한국고전종합DB의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과 「고전번역총서(古典飜譯叢書)」의 자료를 기초로 활용하였다. 또한, 지리산 관련 '유산시(遊山詩)'나 '유산기(遊山記)' 등에서 여정의

표 1. 연구에 선정된 유산록 목록

연번	이 름	유람년도	출 전	유람록 제목
1	김종직(金宗直, 1431~1492)	1472	점필재집(佔畢齋集)	유두류록(遊頭流錄)
2	남효온(南孝溫, 1454~1492)	1487	추강집(秋江集)	지리산일과(智異山日課)
3	김일손(金馹孫, 1464~1498)	1489	탁영집(濯纓集)	두류기행록(頭流記行錄)
4	변사정(邊士貞, 1592~1596)	1580	도탄집(桃灘集)	유두류록(遊頭流錄)
5	양대박(梁大樸, 1544~1592)	1586	청계집(靑溪集)	두류산기행록(頭流山紀行錄)
6	박여량(朴汝樑, 1554~1611)	1610	감수재집(感樹齋集)	두류산일록(頭流山日錄)
7	유몽인(柳夢寅, 1559~1623)	1611	어우집(於于集)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8	허 목(許 穆, 1595~1682)	1640	기언(記言)	지리산기(智異山記)
9	박장원(朴長遠, 1612~1671)	1643	구당집(久堂集)	유두류산기(遊頭流山記)
10	송광연(宋光淵, 1638~1695)	1680	범허정집(泛虛亭集)	두류록(頭流錄)
11	조귀명(趙龜命, 1693~1737)	1724	동계집(東谿集)	유지리산기(遊智異山記)
12	정 식 (鄭 式, 1683~1746)	1724	명암집(明菴集)	두류록(頭流錄)
13	박내오(朴來吾, 1713~1785)	1752	이계집(尼溪集)	유두류록(遊頭流錄)
14	이갑룡(李甲龍, 1734~1799)	1754	남계집(南溪集)	유산록(遊山錄)
15	홍 씨(洪 氏, 생몰년도불명)	1767	삼우당집(三過堂集)	두류록(頭流錄)
16	이동항(李東沆, 1736~1804)	1790	지암집(遲庵集)	방장유록(方丈遊錄)
17	유문룡(柳文龍, 1753~1821)	1799	괴천집(傀泉集)	유천왕봉기(遊天王峰記)
18	안치권(安致權, 1745~1813)	1807	내옹유고(乃翁遺稿)	두류록(頭流錄)
19	남주헌(南周獻, 1769~1821)	1807	의재집(宜齋集)	지리산행기(地異山行記)
20	하익범(河益範, 1767~1815)	1807	사농와집(士農窩集)	유두류록(遊頭流錄)
21	민재남(閔在南, 1802~1873)	1849	회정집(晦亭集)	유두류록(遊頭流錄)
22	김영조(金永祚, 1842~1917)	1867	죽담집(竹潭集)	유두류록(遊頭流錄)
23	송병선(宋秉璿, 1836~1905)	1879	연재집(淵齋集)	두류산기(頭流山記)
24	배 찬(裵 瓚, 1825~1898)	1871	금계집(錦溪集)	유두류록(遊頭流錄)
25	박치복(朴致馥, 1824~1894)	1877	만성집(晩醒集)	남유기행(南遊記行)
26	허 유(許 愈, 1833~1904)	1877	후산집(后山集)	두류록(頭流錄)
27	정재규(鄭載圭, 1843~1911)	1887	노백헌집(老柏軒集)	두류록(頭流錄)
28	강병주(姜柄周, 1839~1909)	1896	두산집(斗山集)	두류행기(頭流行記)
29	송병순(宋秉珣, 1839~1912)	1902	심석재집(心石齋集)	유방장록(遊方丈錄)
30	김회석(金會錫, 1856~1934)	1902	우천문집(愚川文集)	지리산유상록(智異山遊上錄)
31	이택환(李宅煥, 1854~1924)	1902	회산집(晦山集)	유두류록(遊頭流錄)

추적이 확실한 기록을 참고하여 연구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에서 도출된 조선시대 유람경로와 경로주변에 나타난 경관자원의 현황파악을 위한 예비조사는 2013년 5월,6월 두 차례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및 예비조사의 자료를 추가·보완하여 2013년 3차례(8월, 9월, 10월)에 걸쳐 본조사와 함께 현장 인터뷰를 실시하였다[1]. 이 과정에서 도출된 조선시대 문인들의 천왕봉 유람경로를 작성하고, 이 기록에 자주 등장하여 묘사되어진 경관자원을 선정하여 집중분석을 통해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선시대 지리산 유람록을 작성한 문인 31명의 이동경로를 시작점과 도착점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도출된 여정을 각각의 도면에 중복하여 경로를 표현하였다. 또한, 파악된 주경로선상에 나타나는 경관자원의 장소가 표시된 '지리산 경관자원도'와 '조선시대 유람경로도'를 작성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유람경로

조선시대에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유람하였던 총 31명 인물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유람록 내용에서 파악이 불가능한 경로[2]는 유람 당시의 여러 상황들을 유추하여 경로를 분석하고 도면화 하였다. 경로유추는 수치지형도상의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① 기록된 장소와 거리상 이동가능 여부, ② 실제 소요되는 장소간의 이동시간, ③ 실제 이동에 소요된 체류날짜 등의 항목을 판단하여 예상경로를 추적하였다.

또한 유람경로가 불확실한 인물들의 경로는 기록된 당시의

지명이나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주변 지형상황 판단을 통해 유추하였다. 기록된 유람경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경로는 제외하였다. 다음은 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로의 확인이 필요한 인물들의 경로추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표 2 참조).

표 2. 천왕봉을 유람하는 주요 경로

연번	이름	경 로	체류일
1	김종직	〈동강마을〉-〈쑥밭재〉-청이당터-〈하봉〉-천왕봉-통천문-제석봉-〈세석고원〉-창불대-영신봉-〈한신계곡〉-〈백무동〉	4일
2	남효온	〈중산리〉-향적암터-통천문-천왕봉-향적암터-영신봉-〈화개동천〉-의신암터-칠불사	4일
3	김일손	〈중산리〉--법계사-천왕봉-〈장터목일원〉-영신봉-〈화개동천〉	5일
4	변사정	〈쑥밭재〉-하봉-중봉-천왕봉-〈촛대봉〉-영신봉-〈화개동천〉	3일
5	양대박	〈백무동〉-하동바위-〈장터목일원〉-〈제석봉〉-천왕봉-하동바위-〈백무동〉	3일
6	박여량	〈백무동〉-하동바위-〈장터목일원〉-제석봉-천왕봉-〈쑥밭재〉-〈동강마을〉	5일
7	유몽인	〈쑥밭재〉-청이당터-〈하봉〉-천왕봉-〈장터목일원〉-영신봉-〈화개동천〉	4일
8	허 목	백무동-제석봉-천왕봉-제석봉-백무동	부정확
9	박장원	백무동-하동바위-〈장터목일원〉-천왕봉-〈장터목일원〉-백무동	3일
10	송광연	칠불사-영신봉-제석당-〈세석고원〉-석문-천왕봉-석문-〈장터목일원〉-〈백무동〉	3일
11	조귀명	〈백무동〉-〈제석봉〉-천왕봉-〈제석봉〉-〈백무동〉	3일
12	정 식	〈중산리〉-천왕봉-〈중산리〉	2일
13	박내오	〈중산리〉-법계사-천왕봉-〈제석봉〉-〈영신봉〉-〈당재〉-칠불사-신흥사터	3일
14	이갑룡	중산리-법계사-천왕봉-법계사-중산리	6일
15	홍 씨*	백무동-〈장터목일원〉-천왕봉-〈하동바위〉-백무동	2일
16	이동항	백무동-하동바위-〈제석봉〉-천왕봉-〈제석봉〉-백무동	3일
17	유문룡	중산리-〈장터목일원〉-통천문-천왕봉-〈법계사〉-〈중산리〉	2일
18	안치권	중산리-〈법계사〉-천왕봉-〈법계사〉-중산리	2일
19	남주헌	칠불사-영신봉-〈제석봉〉-통천문--천왕봉-통천문-제석봉-〈하동바위〉-백무동	2일
20	하익범	〈중산리〉-〈제석봉〉-천왕봉-〈세석고원〉-영신봉-〈삼정마을〉-칠불사-신응사터	4일
21	민재남	대원사-〈유평마을〉-천왕봉-〈중봉〉-〈하봉〉-〈쑥밭재〉-〈오봉마을〉	1일
22	김영조	〈동강마을〉-〈쑥밭재〉-중봉-천왕봉-〈쑥밭재〉	3일
23	송병선	〈중산리〉-〈장터목일원〉-제석봉-천왕봉-〈장터목일원〉-〈중산리〉	6일
23	배 찬	〈오봉마을〉-〈쑥밭재〉-천왕봉-〈쑥밭재〉-〈오봉마을〉	3일
24	허 유	대원사-〈유평마을〉-천왕봉-〈법계사〉-신선너덜-〈중산리〉	3일
25	박치복	대원사-〈유평마을〉-〈쑥밭재〉-천왕봉-〈유평마을〉-대원사	2일
27	정재규	대원사-〈쑥밭재〉-천왕봉-〈쑥밭재〉-대원사	3일
28	강병주	〈중산리〉-검암-문창대--법계사-천왕봉-법계사-〈중산리〉	3일
29	송병순	중산리-신선너덜-법계사-천왕봉-법계사-중산리	4일
30	김회석	중산리-문창대-법계사-천왕봉-법계사-〈중산리〉	4일
31	이택환	중산리-검암-문창대-법계사-천왕봉-법계사-중산리	2일

*홍씨의 경우는 서문에서 자나 호 등으로 저자를 확인하였으나 이름과 생애가 정확하지 않음.
**〈 〉는 여정에서 현존하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부분을 추정하여 현재 지명기준으로 표기함.
***최석기 외,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3, 4, 5권'의 내용을 재구성함.

천왕봉이 최종 목적지인 경우라면 출발지에 따라 ①백무동~천왕봉, ②동강마을~천왕봉, ③대원사~천왕봉, ④중산리~천왕봉, ⑤삼신동~천왕봉으로 5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였다(표 3 참조).

표 3. 지리산 유람경로 유형화

유형	유람경로
A	A-1. 백무동-한신계곡-세석고원-천왕봉
	A-2. 백무동-하동바위-장터목-천왕봉
B	B-1. 동강마을-쑥밭재-하봉-중봉-천왕봉
C	C-1. 대원사-유평마을-쑥밭재-하봉-중봉-천왕봉
D	D-1. 중산리-법계사-천왕봉
	D-2. 중산리-향적사터-천왕봉
E	E-1. 신흥사터-의신사터-영신봉-세석고원-제석봉-천왕봉
	E-2. 칠불사-선비샘-영신봉-세석고원-제석봉-천왕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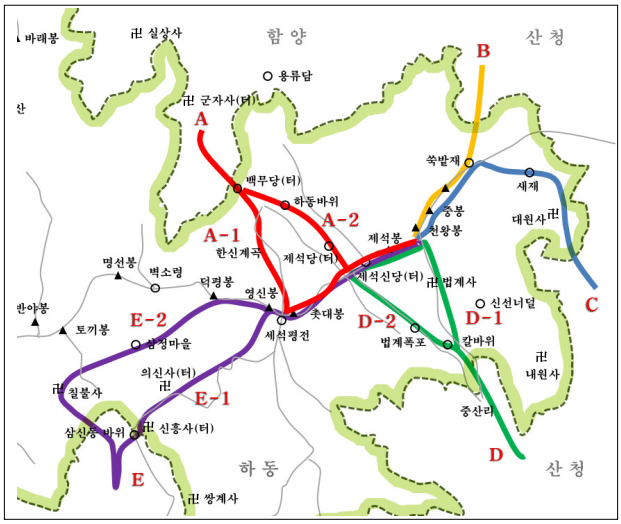

그림 2. 지리산 유람경로 도면화

지리산 천왕봉 일원의 접근은 주능선과 계곡 등의 여러 가지 경로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며, 기문으로 남기는 방식 또한 다양하여 경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유람경로의 도면작성을 위해 경로가 생략된 인물을 중심으로 이동노선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목은 현재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을 거쳐 천왕봉을 등정하고 돌아오는 여정을 하였다. 허목의 유람록에는 이동간에 바라보거나 쉬어갔던 장소들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다만 "...군자사의 남쪽 절벽을 따라 백무동을 거쳐 제석봉에 올랐다. 그 위가 천왕봉인데, 정상의 높이는 1만4천 장(丈)이다..."라는 기록에서 백무동 계곡을 지나서 천왕봉에 오르는 A-2노선을 이용한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조귀명의 등산·하산 경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등산할 때에 계곡으로 추정되는 길을 따라 오르다가 주능선에 올라서 동쪽으로 이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모양의 바위에 올라서 천왕봉에 도착하였는데, 이때 엄지손가락 모양의

바위는 백무동에서 장터목을 지나 천왕봉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장터목에서 천왕봉을 오르는 중간의 제석봉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내려오는 길에 별다른 계곡이나 경치가 없이 하산하였다'에서 한신계곡을 경유하는 노선을 이용하지 않고 최단거리인 하동바위를 지나는 A-2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광연 일행은 영신봉에 도착해서 주변을 조망하고 현재 선비샘으로 불리는 냉천에서 대성동 방향 덕평남릉길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선비샘에서 삼정마을을 지나 당재를 지나 범왕리를 거쳐서 칠불사로 가는 E-2 노선으로 보인다.

정식의 천왕봉을 오르는 여정의 기록은 현재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의 남대마을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대암에서 출발하여 천왕봉에서 일출을 보고 다시 남대암으로 돌아오는 간략한 기록만이 있다. 세부적 여정의 추정은 어렵지만, 1박 2일을 소요하여 남대암에서 천왕봉 일출을 보고 남대암으로 돌아오는 경로는 중산리 방향에서 법계사를 거쳐 천왕봉을 오르는 D-1노선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재남의 등산과 하산의 출발지와 도착지는 정확하나 어느 경로로 이동하였는지 기록이 불명확하다. 대원사를 출발해 율전곡(栗田谷) 양쪽평지에 마을을 지났고, 왼쪽 골짜기로 방향을 잡아서 천왕봉을 오른 것으로 보인다. 대원사에서 유평마을을 지나 골짜기를 지나는 경로는 현재 조개골 골짜기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하산경로는 현재 산청군 금서면 오봉리로 가는 동안의 경로가 없다. 따라서 민재남의 천왕봉 등산 경로는 추정이 어려우나, 대원사에서 출발한 C-1노선과 쑥밭재를 지나는 B-1노선이 가장 유사하여 경로추정에 사용하였다.

김영조의 하산경로를 기록하지 않았으나, 천왕봉 일원을 둘러보고 '돌아갈 시간이 촉박하여 일출과 월출은 보지 못하였다[3)]'에서 등산경로를 이용하여 하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영조는 등산 경로인 B-1노선을 이용하여 같은 경로로 산을 내려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허유는 대원사에서 출발하여 유평을 지나 쑥밭재를 방향으로 천왕봉을 등산하고, 중산리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산하는 경로에 신선너덜과 국수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법계사를 지나서 중산리 중에서도 현재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방향으로 하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병선은 개인적으로 일행들과 따로 이동하여 세석고원을 보고 거림마을에서 다시 합류 후에 천왕봉 등산을 하게 된다. 송병선의 지리산의 전체 일정 중 계획된 여정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이동한 경로는 생략하고, 이 후에 등반한 경로만 살펴보면 중산리에서 현재 장터목 일원을 경유하는 D-2노선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하익범은 세석고원을 지나 영신봉을 통해 하동의 칠불암에서 신흥사로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 「유두류록」에서 "...영신봉에 이르렀는데 40리이니, 곧 하동의 경계다...중략...기이한 봉우리와 괴이한 바위들이 그림처럼 나열해 있고, 두류산의 여러 명승지가 발밑에 모여 있다. 망암을 거쳐 벽소령 냉천 막사까지는 70리이다. 이곳에서 비로소 방향을 바꾸어 내려갔다[4)]..."고 기록하고 있다. 하익범의 기록에는 영신봉에서 벽소령까지의 실제 거리는 약 6km로 리(里)의 개념으로 단위 환산을 하면 약 15리가 된다. 유람록에서 말하는 벽소령까지가 70리라는 거리는 실제로 맞지 않으며, 당시 산행을 하면서 시간이나 거리를 재는 별다른 도구가 없었음을 가정할 때 거리환산 개념을 가지고서는 현재 개념의 거리 계산법으로는 유추가 불가능하다. 또한 다른 조선시대 유람록의 내용들을 살펴 보아도 벽소령 부근을 경유하여 천왕봉을 오르거나 내렸던 기록이 전무하다. 따라서 하익범이 하산한 경로는 벽소령까지 이동하지 않고 그 이전에 위치한 냉천, 즉 현재의 선비샘 인근의 E-2노선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시대 천왕봉을 오르고 유람록을 남긴 31명의 문인을 대상으로 파악한 유람경로 중 변사정, 허목, 안치권, 남주헌, 민재남, 강병주 6명의 기록은 일부 정확한 경로추적이 어려웠고, 유람록의 내용과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확인된 유람 경로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4. 천왕봉 등산 하산 경로

연번	이름	등산	하산	연번	이름	등산	하산
1	김종직	B-1	A-1	17	유문룡	D-1	D-2
2	남효온	D-2	E-1	18	안치권	-	-
3	김일손	D-1	E-1	19	남주헌	-	A-2
4	변사정	B-1	-	20	하익범	D-2	E-2
5	양대박	A-2	A-2	21	민재남	-	-
6	박여량	A-2	B-1	22	김영조	B-1	B-1
7	유몽인	B-1	E-1	23	배 찬	B-1	B-1
8	허 목	A-2	-	24	허 유	C-1	D-1
9	박장원	A-2	A-2	25	박치복	C-1	C-1
10	송광연	E-2	A-2	26	송병선	D-2	D-2
11	조귀명	A-2	A-2	27	정재규	B-1	B-1
12	정 식	D-1	D-1	28	강병주	D-1	-
13	박내오	D-1	E-2	29	송병순	D-1	D-1
14	이갑룡	D-1	D-2	30	김회석	D-1	D-1
15	홍 씨	A-2	A-2	31	이택환	D-1	D-1
16	이동항	A-2	A-2				

위의 표와 같이 천왕봉을 오르는 최단경로인 백무동을 경유하는 A-2노선을 이용한 사람은 양대박·박여량·허목·박장원·송광연·조귀명·홍씨·이동항·남주헌 등 9명 이었고, 중산리를 경유한 D-1노선은 김일손·정식·박내오·이갑룡·허유·강병주·송병순·김회석·이택환 등 9명으로 A-2노선과 D-1노선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신계곡을 경유하는 노선을 이용한 사람은 김종직 한 사람으로 나타났으며, 칠불사에서 덕평봉의 선비샘을 지난 사람은 송광연·박내오·하익범 등 3명이었다.

2.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경관자원

조선시대 지리산 천왕봉을 다녀와서 유람록을 남긴 문인은, 1472년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유람에서부터 1902년 회산(晦山) 이택환(李宅煥)의 유람까지 총 31편을 중심으로 경관자원을 분석하였다.

이들 기록에 나타난 유람경로는 수백 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람이 이뤄졌으며, 경관자원 중 자연경관자원의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그 모습과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나는 경관자원은 천왕봉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두 개의 주능선과 협곡을 따라 형성된 다섯 개의 계곡부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중봉·하봉·영신봉·제석봉 등이며, 봉우리 주변으로 자연암반에 의해 형성된 대(臺)의 형태[5]인 일월대·문창대·영신대·영랑대·소년대·가섭대·좌고대 등이 있다. 기암의 단독 형태를 가진 암석유형으로는 하동바위·칼바위·신선너덜·통천문 등이 있다.

또한 기록에 등장하는 계곡으로는 옥련동, 월락동, 황혼동, 자진동, 성사동은 천왕봉 등정 가운데 지나쳤던 계곡들로 현재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는 어렵고, 홍류동 계곡, 중산리 계곡, 한신계곡은 확인이 가능하다.

지리산을 유람하는 과정에서 영원암, 두류암, 의신사, 신흥사 등 수많은 사찰 및 암자가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리라 추정되며, 법계사, 칠불사, 쌍계사는 현존하고 있다.

그 외 조선시대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면서 자주 언급되었던 주변 풍경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광연의 유람록에도 김종직의 글에서 언급되었던 매(鷹)를 잡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매사냥꾼들은 봉우리에서 지대가 평평한 곳에 그물을 설치하고 나뭇가지와 잎으로 위장한 움집에 들어가서 지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제석당에 이르러 주변이 훤히 내다보이고, 바람에 의해 비슷하게 구부러진 철쭉만이 자라고 있다고 하였다. 향적사 옛터에서 잠시 휴식을 한 후, 통천문을 지나 천왕봉에 올랐다. 천왕봉 위에는 돌무더기 옆으로 3칸 판자건물이 위치하고, 그 안에는 성모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천왕봉에서 보이는 여러 도읍들을 둘러보다가 낙조를 바라보며 감흥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 문인들이 지리산을 유람하고 작성한 기록을 인상 깊은 기억에 대한 표현방법의 하나로 볼 때, 유람록에 출현하는 장소는 역사·문화적 경관자원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천왕봉을 목표로 이동하며 감상한 경관자원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5구간에 위치한 경관자원 요소를 다시 14개의 일원으로 구분하여 유람록 내용을 재분석하였다.

표 5-a. 구간별 경관자원의 분석 종합

구간	대상지	경관자원	기록여부	가치여부
1.주능선 구간	천왕봉 일원	천왕봉	31	상
		일월대	19	상
		천왕당	14	하
		천왕샘	5	중
		산희샘	5	중
	영신봉 일원	영신봉	1	상
		영신사(암)	6	하
		좌고대	3	상
		마암	2	상
	세석고원 일원	세석고원	4	상
		촛대봉	4	상
		향적사	7	하
		청학연못	1	상
2.대원사~천왕봉 구간	쑥밭재 일원	독바위	1	상
		고열암	1	하
		두류암	3	하
		상류암	1	하
		신열암	1	하
		선열암	1	하
		청이당	2	하
	하봉 일원	하봉	3	상
		영랑대	2	상
		소년대	2	상
		배바위	2	중
3.중산리~천왕봉 구간	법계사 일원	법계사	6	중
		문장대	3	상
	법천폭포 일원	법천폭포	2	중
		칼바위	2	상
	신선너덜 일원	신선너덜	2	상
4.삼신동~천왕봉 구간	덕평봉 일원	덕평봉	0	상
		선비샘	3	중
	삼신동 일원	삼신동 바위	3	중
		세이암	4	중
		신흥사(암)	6	하
		의신사(암)	3	하
	칠불사 일원	칠불사	6	중
		당재	2	중
		사자정	2	상
5.백무동~천왕봉 구간	백무당터 일원	백무당	6	하
		한신계곡	1	상
	하동바위 일원	하동바위	4	중
	제석당터 일원	제석당터	3	하

먼저 기록 여부를 바탕으로 각 대상지에 속해있는 경관자원을 구분하였고, 언급된 장소에 대한 횟수가 장소가 갖는 가치와 고하를 결부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경관자원에 대한 묘사나 표현이 나타나는 장소는 문인들이 천왕봉을 오르면서 인상 깊었거나 중요하게 여겼던 장소라 볼 수 있기에 기록에서 언급된 횟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표 5-b 참조).

조선시대 지리산 유람록에서는 천왕봉 주변에서 가까운 장소인 일월대와 천왕샘의 기록이 대부분의 문인들의 기록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소에 대한 기록이 10회 이하로 언급된 인물은 총 31명 중 무려 25명이였다. 이는 지리산 유람에 있어서 전체적인 여정의 기록보다는 일부 인상 깊은 장소를 대상으로 기록을 남긴 것을 뜻하며, 그 외 지리산 유람과정에서 경관자원에 세부적으로 기록한 문인은 김종

표 5-b. 천왕봉 여정에 나타난 주요 경관자원

연번	경관유형	경관요소	인 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봉우리	천왕봉	●	●	●	●	●	●	●	●	●	●	●	●	●	●	●
2		중봉	●														
3		하봉	●					●									
4		제석봉	●				●	●		●			●				
5		영신봉	●														
6		촛대봉		●					●								
7	령, 재	사자정							●			●					
8		당재		●								●					
9		쑥밭재	●														
10		사립재															
11		세석고원	●	●					●								
12	대	일월대											●	●	●	●	●
13		문창대			●												
14		영신대															
15		좌고대	●	●	●												
16		창불대	●		●												
17		영랑대	●						●								
18		소년대	●						●								
19	바위, 기암	신선너덜															
20		통천문	●	●	●		●				●	●			●	●	
21		마암	●														
22		하동바위					●				●			●			
23		칼바위															
24		배바위	●								●						
25		삼신동바위				●						●			●		
26		세이암							●			●			●		
27		독녀바위	●														
28	계곡	백무동계곡	●				●	●		●			●				●
29		한신계곡	●														
30		홍류동계곡							●								
31	폭포	법천폭포													●	●	
32	샘, 연못	천왕샘													●		
33		산희샘	●		●			●									
34		세석천	●		●										●		
35		선비샘										●			●		
36		참샘															
37		청학연못															
38	암자, 사찰	법계사			●										●	●	
39		영신사	●	●	●				●			⊙			⊙		
40		칠불사		●		●						●			●		
41		의신사		●					●			⊙					
42		신흥사			●	●			●			⊙			●		
43		대원사															
44		영원암				●											
45		고열암	●														
46		신열암	●														
47		선열암	●														
48		두류암				●			●								
49		향적사	●	●	●				●			⊙					
50		상류암						●									
51	사당	천왕당	●	●	●		●	●	●		●	●	●		●		●
52		제석신당					●	●			●	●					●
53		제석당터					⊙	⊙			⊙						
54		호귀당													●	●	
55		청이당							●								
56		백문당					●	●			●	●					●
계			25	11	12	6	9	10	15	3	8	15	5	3	15	6	6

* 유람록 인물과 유람연도 범례: 1. 김종직(金宗直, 1472), 2. 남효온(南孝溫, 1487), 3. 김일손(金馹孫, 1489), 4. 변사정(邊士貞, 1580), 5. 양대박(梁大樸, 1586), 6. 박여량(朴汝樑, 1610), 7. 유몽인(柳夢寅, 1611), 8. 허 목(許 穆, 1640), 9. 박장원(朴長遠, 1643), 10. 송광연(宋光淵, 1680), 11. 조귀명(趙龜命, 1724), 12. 정식 (鄭式, 1724), 13. 박내오(朴來吾, 1752), 14. 이갑룡(李甲龍, 1754), 15. 홍씨(洪氏, 1767).

** '●'의 표기는 유람록 기록에서 언급된 장소이며, '⊙'의 표기는 유람록 기록에서 언급된 당시 폐허가 된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직(金宗直, 1431~1492)·남효온(南孝溫, 1454~1492)·김일손(金馹孫, 1464~1498)·유몽인(柳夢寅, 1559~1623)·송광연(宋光淵, 1638~1695)·박내오(朴來吾, 1713~1785) 총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유람록은 추후 지리산 경관자원 분석 및 경로 파악 등 추후 지리산 경관자원 연구에 도움이 될 사료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여러 경관자원이 위치한 장소들이 조선시대에 나타난 차이의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대상지 일원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소에 대한 가치는 ①장소가 현존하면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 ②장소는 현존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모습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곳, ③장소가 존재하지 않고 터만 존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변형이 심하여 옛 모습을 유추하기 힘든 곳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상·중·하의 가치를 부여하였다(표 5-a 참조).

표 5-b. 계속

연번	경관유형	경관요소	인 물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계
1	봉우리	천왕봉	●	●	●	●	●	●	●	●	●	●	●	●	●	●	●	●	31
2		중봉							●	●	●	●		●					6
3		하봉										●							3
4		제석봉	●										●						7
5		영신봉																	1
6		촛대봉					●				●								4
7	령, 재	사자정																	2
8		당재																	2
9		쑥밭재								●		●		●					4
10		사립재								●									1
11		세석고원											●						4
12	대	일월대	●	●	●	●	●		●	●	●	●	●	●			●	●	18
13		문창대													●	●	●	●	5
14		영신대				●	●												2
15		좌고대																	3
16		창불대																	2
17		영랑대																	2
18		소년대																	2
19	바위, 기암	신선너덜											●			●			2
20		통천문		●		●	●				●		●						13
21		마암	●																2
22		하동바위	●																4
23		칼바위													●			●	2
24		배바위																	2
25		삼신동바위																	3
26		세이암											●						4
27		독녀바위																	1
28	계곡	백무동계곡																	6
29		한신계곡																	1
30		홍류동계곡																	1
31	폭포	법천폭포																	2
32	샘, 연못	천왕샘									●	●		●		●			5
33		산희샘	●							●									5
34		세석천																	3
35		선비샘					●												3
36		참샘	●																1
37		청학연못								●									1
38	암자, 사찰	법계사													⊙	●		●	6
39		영신사																	6
40		칠불사					●						●						6
41		의신사																	3
42		신흥사											⊙						6
43		대원사									●	●		●					3
44		영원암																	1
45		고열암																	1
46		신열암																	1
47		선열암																	1
48		두류암							●										3
49		향적사		⊙			⊙												7
50		상류암																	1
51	사당	천왕당	●			●			●										14
52		제석신당	●			●													7
53		제석당터																	3
54		호귀당				●	●												4
55		청이당								⊙									2
56		백문당	●																6
계			10	4	2	7	9	1	5	7	7	7	9	6	4	5	3	5	

* 유람록 인물과 유람연도 범례:16. 이동항(李東沆, 1790), 17. 유문룡(柳汶龍, 1799), 18. 안치권(安致權, 1807), 19. 남주헌(南周獻, 1807), 20. 하익범(河益範, 1807), 21. 민재남(閔在南, 1849), 22. 김영조(金永祚, 1867), 23. 송병선(宋秉璿, 1879), 24. 배찬(裵瓚, 1871), 25. 박치복(朴致馥, 1877), 26. 허유(許愈, 1877), 27. 정재규(鄭載圭, 1887), 28. 강병주(姜柄周, 1896), 29. 송병순(宋秉珣, 1902), 30. 김회석(金會錫, 1902), 31. 이택환(李宅煥, 1902)

** '●'의 표기는 유람록 기록에서 언급된 장소이며, '⊙'의 표기는 유람록 기록에서 언급된 당시 폐허가 된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3. 경관자원의 관리 및 활용방안

지리산 지형의 형성은 지각변동에 의해 형성된 단열선 위로 흐르던 하천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산자락을 침식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깊은 골짜기를 이루었다. 그 능선과 능선 사이로 발달한 계곡, 즉 북으로 달궁계곡, 심원계곡, 뱀사골계곡, 백무동계곡, 칠선계곡과 남으로 피아골계곡, 천은사계곡, 화엄사계곡, 선유동계곡이 놓인 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유람록에는 지리산의 수많은 계곡 중에서 일부만 이용하고 있다. 칠선계곡은 천왕봉에서 함양군 마천면 광점동 추성계곡에 이르는 14km 길이로 된 지리산의 최장의 계곡으로서 설악산의 천불동계곡, 한라산의 탐라계곡과 더불어 남한의 3대 계곡을 이루고 있지만, 유람록에 나타난 문인들의 지리산 등정 중에서 현재의 주능선 경로를 비롯해 칠선계곡 등으로 오르내린 경로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계곡과 관련한 기록이 없는 것은 지리적 정보의 수집 능력이 현대에 비해 희박했던 시대인 만큼 문인들에게 발견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조식, 이동항 등 여러 문인들은 지리산을 등산할 계획을 하거나 산을 직접 오를 때에 김종직의 「유두류록」을 지침서와 같이 지니고 다녔다. 먼저 다녀온 존경할만한 선배 문인들이 다녔던 경로를 답습하면서, 그 분들의 생각까지 배우고자 하는 행위에서 순례지의 개념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로분석은 인물사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문인들의 경로나 선현들의 발자취를 답습하려는 취지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시대의 지리산 경관자원은 산 등정을 하면서 발생되는 동선의 선형 궤적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적인 행위가 가능한 곳에서는 사료적인 행위와 기록이 함께 남겨지게 되면서 경관 자원들이 위치한 장소의 역사와 상징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역사성을 지니는 장소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역사적 내용이나 사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우수하다. 이러한 경관자원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고양 및 지역의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강화 등 생산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듯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명승적 가치가 우수한 경관자원은 보호와 활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대상으로서, 상호간 균형유지가 관건이다. 지리산의 생물종다양성 및 생태적가치가 높고 사람의 이용이 적은 곳과 관광 레크레이션 행위가 불가피한 곳으로 사람이 이용이 많은 곳 등 보전과 활용의 경우에 따라 적절한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리산 국립공원 내 경관자원의 관리운영은 보전과 활용 유형을 나누어서 유동성 있는 관리운영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지리산 유람을 즐기며 기록되었던 유람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리산을 유람한 경로를 파악하고, 당시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각에 보여 졌던 경관자원의 가치를 알아보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산을 오르며 기록되었던 유람록은 특정 장소에서의 행위와 감흥에 대한 묘사에만 집중되었고, 주변 경관자원 장소의 표현이 생략된 작품들은 조경학적 차원에서 경관분석이나 지리적 정보의 유추 작업을 실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리산 천왕봉을 유람한 조선시대 문인 31명의 기문을 전문적 종합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충실한 묘사와 유람경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한 김종직(金宗直, 1431~1492)·남효온(南孝溫, 1454~1492)·김일손(金馹孫, 1464~1498)·유몽인(柳夢寅, 1559~1623)·송광연(宋光淵, 1638~1695)·박내오(朴來吾, 1713~1785) 등 6명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에 대한 유람록 내용의 표현 묘사를 바탕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경관분석 및 지리적 정보를 접목하여 조경학적 차원에서 사료적 가치의 우수함을 밝혔고, 분석결과 유람록에 작성된 내용을 인상 깊은 기억에 대한 표현방법의 하나로 볼 때, 그 표현이 천왕봉, 일월대, 천왕당(터), 통천문 등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 문인들이 다녔던 지리산 천왕봉 유람경로는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지리산 유람 시 안내책자와 같은 지침서는 김종직의 「유두류록」로 그 중요성은 문인들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리산 유람의 목적에 인물사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인의 발자취를 답습하며 명인들의 생각까지 배우고자 하는 순례개념의 유람이 가장 특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 문인들이 지리산 천왕봉을 등정의 목적지로 유람 할 경우의 등반코스를 추출하여 각각에 대한 코스를 현재의 수치지형도에 표현하여, 모든 경로를 중첩 할 경우 ①백무동~천왕봉, ②동강마을~천왕봉, ③대원사~천왕봉, ④중산리~천왕봉, ⑤삼신동[신흥마을]~천왕봉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선시대 천왕봉 유람자료에는 명승개념의 가치가 있는 14개의 대상지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왕봉·영신봉·하봉·세석고원·법천폭포 일원은 유람록에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장소로 판단되었고, 현대적인 입장에서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경관자원으로 체계적인 원형보존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쑥밭재·법계사·신선너덜·삼신동·하동바위 일원의 경관요소들은 기록에 의해서만 일부 옛 경관이 유지되어 명소로서의 판단에 한계를 지니고 있

었다. 그 외 백무당터 등 4개소의 일원의 경관요소들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주변경관의 변형이 심하였으며, 대상지의 가치를 제고할 기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선시대의 유람록에 나타난 경관자원은 지리산 천왕봉을 중심으로 동부지역의 높은 봉우리와 일부 계곡부에 집중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는 천왕봉·반야봉·노고단의 3대 주봉과 여러 계곡으로 경관자원의 개소수가 조선시대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지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기나 욕구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변화는 더이상 선인들이 다녔던 길의 답습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탐방로의 개척과 편리성에 주목하여 산을 등반할 수 있는 경로를 개척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생성된 등산 경로를 따라 발굴되는 우수한 경관자원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가치가 변화된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승의 개념은, 설사 이용하려는 동기와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더라도 넓은 의미의 명승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자료 선정에 있어서 '유람록'이라는 문헌에 의존한 '지리산 천왕봉 유람구간'이라는 일부를 설정하여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폭넓고 정밀한 경관자원분석 차원에서 범위설정과 추가적인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주 1) 인터뷰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경관자원에 대한 기본정보와 주변 상황의 변화정도 등을 파악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지리산 내부 지리적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3년이상 근무경력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백무동 분소 3명, 중산리 분소 3명, 연하천대피소 2명, 장터목대피소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타 일반 방문객은 1년 5회 이상 천왕봉 일원을 찾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수 경관자원 등 지리산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주 2) 정치영(2009)은 지리산과 지리산 주변까지의 유람의 경로파악에 있어서 산을 내려오는 여정의 기록이 산을 오르는 기록에 비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분석이 어렵다고 하였다.

주 3) 김영조(金永祚).『죽담집(竹潭集)』.「유두류록(遊頭流錄)」. "...歸期甚促 日月之出 未之見也..."

주 4) 하익범.『사농와집』.「유두류록」:"...至靈神臺四十里 卽河東界 巡相中火所也 廊舍行廚 較上峰 三之一 奇奉怪巖 羅列如圖 頭流諸名勝萃在脚下矣 由望巖 至碧宵嶺冷泉站七十里 自此始轉下路也..."

주 5) 일반적으로 산악용어에서 '臺'는 웅장하고 거대한 바위를 의미하고, 지리산에서 이러한 대(臺)자의 의미가 중요함은 수도(修道)하는 장소로 이용이 많았었다. 또한 이러한 수도처나 암자의 뒤편에는 거대한 바위나 암봉(巖峰), 그리고 샘터가 위치하고 있다(노병한. 노병한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명당산책: 대(臺)자 지명의 신령하고 영험한 기도처. breaknews. 2011. 6.2 기사)

인용문헌

1. 金馹孫.『濯纓集卷之五』.「頭流記行錄」. 한국문집총간.
2. 金宗直.『佔畢齋集卷之一』.「遊頭流錄」. 한국문집총간.
3. 曺 植.『南冥集卷之二』.「遊頭流錄」. 한국문집총간.
4. 南孝溫.『秋江集卷之六』.「智異山日課」. 한국문집총간.
5. 朴來吾.『尼溪集之十二』.『遊頭流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6. 朴汝樑.『感樹齋集之六』.「頭流山日錄」. 한국문집총간.
7. 朴長遠.『久堂集之一五』.「遊頭流山記」. 한국문집총간.
8. 宋光淵.『泛虛亭集之七』.「頭流錄」. 한국문집총간.
9. 宋秉璿.『淵齋集之二十一』.「頭流山記」. 한국문집총간.
10. 宋秉珣.『心石齋集之十二』.「遊方丈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1. 梁大樸.『靑溪集之四』.「頭流山紀行錄」. 한국문집총간.
12. 柳夢寅.『於于集之六』.「遊頭流山錄」. 한국문집총간.
13. 河益範.『士農窩集』.「遊頭流錄」. 경상대학교 박물관 문천각 소장.
14. 許 穆.『記言』.「智異山記」. 한국문집총간.
15. 곽재용(2011). 땅이름 '지리산'고찰. 지명학 17. pp.5-34.
16. 김선희(2009). 조선시대 지리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관광연구저널 23(2): pp.415-434.
17. 김세천(1993). 지리산 국립공원의 관리개선을 위한 이용자 행태분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1(2): pp.63-75.
18. 노재현, 박종민, 안득수(2009). 백두대간 노치마을의 장소성과 향토문화경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3): pp.76-86.
19. 신승진, 강철현, 유창민, 이재근(2006). 명승지정을 위한 세부 평가 항목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4): pp.102-110.
20. 이도한, 권혜진, 송호경(2008). 지리산국립공원 해발고도와 식새에 따른 번식기 조류군집의 특성.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2(5): 471-480.
21. 임승빈(2003).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2. 임양재(1963). 지리산의 식생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1. pp.269-286.
23. 정경운(2011). 지리산 공간 스토리텔링. 남도문화연구소 20. pp.193-211.
24. 정치영(2009).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4(3): pp.206-281.
25. 이륙 저, 최석기 역(2007).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서울: 돌베개.
26. 최석기, 강정화, 전병철, 김지영, 양판석(2008).『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서울: 보고사.
27. 최석기(2009).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3. 서울: 보고사.
28. 최석기, 강정화, 전병철, 김지영, 양판석(2010).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4. 서울: 보고사.
29. 최석기, 강정화, 김지영, 이영숙, 강현진(2013).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5. 서울: 보고사.
30. 홍성욱(1999). 조선전기 유두류록의 지리산 형상화 연구. 한문학논집 17. pp.23-53.

원 고 접 수 일: 2014년 3월 7일
심 사 일: 2014년 3월 16일 (1차)
2014년 3월 24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3월 24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